

<http://doi.org/10.52530/kpac.2026.58.1>

죽국헌(竹菊軒) 김상직(金商稷) 시가(詩歌)의 현실 인식과 향촌의 공간성 - <戒子詞>와 <入山歌>를 중심으로

이승준*

차례

1. 서론
2. 가문 질서의 확장과 귀농(歸農)의 공간: <戒子詞>
3. 시비(是非) 갈등의 대응과 거류(去留)의 공간: <入山歌>
4. 결론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죽국헌(竹菊軒) 김상직(金商稷) 시가에 나타난 현실 인식과 향촌의 공간성을 검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그의 시가 작품을 관류하는 통합적 독법을 마련하는 한편, 조선 후기 호남 사족 시가의 다기성(多岐性)에 대한 이해에 기여를 하기 위함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김상직은 가문 질서의 정립을 추구한 이념적 수호자로 평가되는가 하면, 현실도피적 은거 행위로 말미암아 자연과의 합일에 실패한 존재로 이해되고 있다. 본고는 김상직과 그의 시가 작품에 대한 선행 연구의 쟁점적 전망을 극복하기 위하여 <戒子詞>의 창작 맥락을 재점검하는 한편, 강호시가의 자장(磁場)에서 산출된 <入山歌>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두 작품의 창작 맥락은 향촌사족으로서 도덕적 위기의식과 이념적 실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상직에게 향촌은 강호와 대립하는 세속적 공간

*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조건에 따라 이념적 위기와 도덕성 정립의 구도를 왕복하는 ‘동태적(動態的) 공간’이었던 것이다. <계자사>에서 귀농(歸農)의 공간으로 묘사된 향촌은 안빈낙도를 저해하는 공간이면서도, 가문을 넘어 분향 일원 사족들의 학문적 연대와 이념적 결속을 고양하는 교화의 공간이었다. 또한 <입산가>에 나타난 장수 팔공산으로의 은거는 향촌 사회의 시비(是非) 갈등에 대한 이념적 실천의 결과였다. 이에 강호는 세속과 격절된 관념적 심상 공간이 아닌, 도덕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구현하였던 장성 분향과의 연장선에서 떠남(去)과 머뭇(留)이 공존하는 ‘거류(去留)’의 공간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입신의 전망이 부재했던 한미한 사족 가문 구성원인 김상직의 시가는 향촌의 공간성, 보다 엄밀히 말하여 향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중앙 정치 참여의 욕망과 좌절에 따른 처세의 문제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김상직 시가에 나타난 향촌의 공간성은 조선 후기 호남 향촌사족의 시가가 향촌과 가문 내부의 현실적 맥락에 따라 다채로운 층위의 주제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문학적 전제가 되었음을 실증한다는 점에서, 그 시가사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핵심어 : 김상직, <戒子詞>, <入山歌>, 향촌의 공간성, 조선 후기 호남 사족 시가, 다기성(多岐性)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죽국헌(竹菊軒) 김상직(金商稷, 1750~1815) 시가(詩歌)의 현실 인식과 향촌의 공간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행 연구의 작품별 접근으로 인한 해석적 간극을 극복하고 김상직 시가에 대한 통합적 독법을 제안하는 한편, 그 창작 맥락을 경향(京鄕)의 구도에서 벗어나 다기성(多岐性)의 측면에서 조명함으로써, 조선 후기 호남 향촌사족 시가의 이해를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지하듯 조선 후기 시가사(詩歌史)는 경향의 구도가 주요한 논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중 향촌사족 시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18세기 이후 주요 사회 현상인 향반화(鄕班化)의 동향이 주목받았다. 창작 주체의 향촌 활동은 중

양 정계로의 출사(出仕) 전망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족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았고, 이들의 시가 또한 전대의 시가 전통에 대한 계승의 측면이 강조되었다. 특히 유교의 전인격적 도덕 준칙과 관련한 강호(江湖), 교훈(敎訓) 등의 시가 작품은 향촌과 가문 단위의 내적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문학적 수단으로 그 의미가 조명되었다.

이후, 조선 후기 향촌사족의 현실적 기반과 시가 창작 간의 관련성은 향반화의 경향이 더욱 심해져 갔던 19세기 시가사를 이해하는 전제로 자리하였다. 그 결과 조선 후기 향촌사족 시가의 기본적인 접근은 18세기의 전망이 19세기에 심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마련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본고의 주된 관심인 호남 향촌사족 시가에 대한 이해 또한 마찬가지이다. 위백규(魏伯珪, 1727~1798)¹⁾와 남극엽(南極曄, 1736~1804)²⁾을 중심으로 마련된 18세기 호남

- 1) 위백규의 <農家九章>에 대한 연구 동향은 18세기 향촌사족 시가에 대한 이해를 적절히 보여준다. 작품의 창작 맥락과 관련하여 장흥 지역 세거 사족으로서 위백규 가문의 위상과 동향에 대한 검토는 18세기 향반화의 맥락과 긴박되어 있다. 초기 이종출(이종출, 『魏伯珪의 時調 <농가> 攷』, 『사대논문집』 1,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1970, 41~46쪽.)에 의해 학계에 소개되고 임주탁에 의해 연시조로서의 성격(임주탁, 『위백규 <농가>에 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15,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0, 245~267쪽.)이 검토된 이후, 위백규와 <농가구장>에 대한 이해는 김석희에 의해 심화되었다.(김석희, 『존재 위백규 문학 연구 - 18세기 향촌사족층의 삶과 문화-』, 이화문화사, 1995, 1~369쪽.; 『18세기 향촌사회와 魏伯珪의 <농가구장>』, 김학성·권두환 편, 『신편 고전시가론』, 새문사, 2002, 326~337쪽.) 김석희는 <농가구장>에 구현된 공동체적 삶과 의미 지향을 경제적 몰락과 정치적 불우에 대한 문제에서 살폈는데, 18세기 향촌의 정치사회적 전망을 근간으로 장흥 지역 세거 성씨인 장흥 위씨 가문의 위상과 위백규 개인의 동향을 입체적으로 조망하였다. 이에, 김석희에 의해 마련된 작가론적 구도에 기반하여 <농가구장>의 작품론적 성격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김용찬, 『위백규 <농가>의 구조와 작품세계』, 『어문논집』 48, 민족어문학회, 2003, 127~160쪽.) 그 과정에서 위백규와 <농가구장>의 시가사적 위상은 전가시조의 미적 자질(권순희, 『田家時調의 美的 特質과 史的 展開 樣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27~140쪽.)이나, 권농가(勸農歌)이자 교훈시조로서의 면모(안혜진, 『위백규 <농가구장>의 권농가적 특성과 그 의의』, 『한국시가연구』 21, 한국시가학회, 2006, 217~248쪽.) 등과 관련하여 조명되기도 하였다. 위백규와 <농가구장>은 연구 방법에 따라 작품의 의미가 다채롭게 진단되고 있지만, 18세기 향반화의 동향과 사족 사회의 위상 정립에 대한 문제는 작품론적 검토의 이론적 전제로 공유되고 있다. 이는 비교적 최근, 거업의 실패와 경제적 몰락에 대한 문제에서 벗어나 선대(先代)의 향촌 활동에 대한 전범적 가치 인식과 계승의 층위에서 진단한 연구(신성환, 『조선후기 農歌類 詩歌의 전개 양

사족 시가에 대한 관심은, 향촌 사회의 동향과 사족적 정체성 수립에 대한 문제의식을 잘 보여준다.

물론 위백규 시가가 창작 주체의 정치적 부침과 경제적 위기로 대변되는 불우한 현실 인식에 근간한 반면, 남극엽은 비교적 안정적인 재지적 기반과 자족적 삶에 대한 지향에서 시가를 창작하였다는 이해는 쟁점적이다. 다만 위백규의 <농가구장>에 나타난 가문 구성원 간의 화합과 남극엽의 시조 개작 과정에 반영된 교화의 시선 등이 향촌 공동체적 삶의 안정과 결속에 대한 문제로 평가된다는 점은 공통 전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무엇보다 위백규와 남극엽이 일정한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었고, 위백규와 이상계(李商啓, 1758~1822) 또한 인척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점³⁾ 등이 작가별 현실 인

상과 의미 지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75~92쪽.)에서도 이어졌다. 요컨대, 위백규와 <농가구장>은 연구 방향에 따라 그 시가사적 위상에 대한 의미의 방향은 다소 상이할지라도, 18세기 향반화의 동향과 사족적 정체성의 문제는 작품 이해의 필수 전제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 2) 남극엽 시가에 대한 관심은 강호시조인 <愛景堂十二月歌>를 중심으로 18세기 향반화의 동향에 대한 문제의식 아래 전개되었다. 초기 이상보(이상보, 『애경 남극엽 시가 연구, 『어문학논총 7,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88, 5~34쪽.)에 의해 학계에 소개된 이후 남극엽 시가의 창작 맥락에 대한 관심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수행되었다. 정홍모(정홍모, 『18세기 향촌사대부 시조의 한 국면 - 남극엽·황윤석·안창후의 시조, 『조선후기 사대부 시조의 세계인식, 월인, 2001, 211~236쪽.)와 국윤주(국윤주, 『애경당 남극엽의 시가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62쪽; 『연시조 <애경당십이월가>에 나타난 향촌사족층 문인의 내면의식, 『어문논총 16,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05, 83~108쪽.)는 18세기 향촌 사회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였다면, 설인경(설인경, 『18세기 향촌 사족의 시조 연구, 『문창어문논집 47, 문창어문학회, 2010, 197~233쪽.)과 윤병용(윤병용, 『남극엽 시조의 개작 및 한역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51, 한국고전문학회, 2017, 97~128쪽.)은 담양 사족으로서 남극엽의 안정적인 재지적 기반과 경제적 면모에 주목하였다. 특히 윤병용은 18세기 향반화 경향에 기반한 작품 분석을 환원론적 구도로 비판하고, <애경당십이월가>의 개작 및 한역 양상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창작 주체가 지닌 자기 인식의 동태적 변화상과 그에 따른 변별적 자질을 조망하였다. 그 결과 남극엽의 시조는 단일한 계층의식만으로 검토할 수 없음을 밝힌 점은 참고할 만하다. 남극엽의 <애경당십이월가>는 권정은(권정은, 『조선후기 변이형 자연시조의 미적 경계: <花庵九曲>과 <愛景堂十二月歌>를 중심으로, 『한국학 2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207~231쪽.)에 의해 18세기 향반화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접근에서 벗어나, 자연시조의 미적 범주와 조선 후기의 변별적 양상에 대한 관심에서 검토되기도 하였다.

식의 층차와는 별개로, 작품의 공통된 산출 기반으로 주목받는 동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8세기 호남 사족 시가에 대한 관심은 이후 19세기 작품들에 대한 이해에도 연속되었다. 특히 남석하(南碩夏, 1773~1853)와 이상계 등의 시가 작품의 창작 및 향유 맥락을 진단하는 기준에도 영향을 미쳤던바, 18~19세기 향촌의 현실적 조건과 사족으로의 자기 인식을 전제로 그 변모의 양상과 동인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선행 연구의 성과는 조선 후기 사회사의 거시적 구도 아래 창작 주체의 개별적 조건들에 대한 작가론적, 작품론적 이해 마련에 기여한 바가 분명하다. 물론 논의의 방향에 따라 항반화리는 사회사적 조건에 대한 연역적 독법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발생하였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전제로 개별적 특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역시 꾸준히 강조되었다.⁴⁾ 그 결과 19세기 호남사족 시가의 면모는 다기성(多岐性)에 대한 문제의식이 중요한 접근 구도로 자리하게 되었고, 이는 강호, 교훈 등과 같은 전범적 주제에 대한 이해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남석하 가사에 대한 윤병용의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윤병용은 남석하 가사에 나타난 출사 욕망과 향촌에 대한 부정적 재현, 탈규범적 성격 등을 19세기의 변별적 자질로 주목하였던바, 18~19세기 시가사의 교량적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그 시가사적 의의를 살폈다.⁵⁾ 이후 남석하 가사에 대한 관심은 문학장의 개념을 통해 조선 중·후기 강호시가의 사적 전개를 검토한 윤지아의 연구에서도 조명되었다. 그 과정에서 <초당춘수곡>에 담긴 세속 지향은 중앙 정계에 대한 욕망의 문제로 진단되는 한편, 19세기 향촌사족의

-
- 3) 윤지아, 「조선 중·후기 지역 문학장의 변모 양상과 江湖歌辭의 의미 지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59~168쪽.
 4) 김석희에 의해 제안된 계층론적 문학연구의 비판적 태도에 기반하여 이상계 가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안한 박영민의 논의는 이를 잘 보여준다. 박영민, 「지지제 이상계의 초당곡·인일가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3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74~77쪽.
 5) 윤병용, 「남석하 가사의 특징과 19세기 향촌사족의 시적 지향」, 『고전문학연구』 55, 한국고전문학회, 2019, 5~38쪽.

위상이 전대에 비해 쇠락해져 가는 정황을 방증하는 사례로 검토되었다.⁶⁾

남석하 가사에 대한 선행 연구는 전대의 미감에서 벗어난 변별적 양상만큼이나 19세기 시가에서 향촌의 공간성이 변화되어 간 동향을 제언하는 점에서 흥미롭다. 특히 남석하에게 향촌이 자신의 입신(立身)을 가로막는 부정적 공간으로 인식되었다는 견해⁷⁾는 18세기에 향촌이 사족적 정체성 정립과 관련한 이념적 공간으로 설정되었던 것과는 이질적이다. 이러한 면모는 남석하 가사가 19세기 시가사의 주요 특징인 세속 지향과 통속성을 방증하는 자료로 검토되는 점⁸⁾을 고려할 때, 조선 후기 호남사족 시가사의 다기성에 대한 주요 독법으로 향촌 공간의 인식 변화가 지니는 의미를 가늠하게 한다.

다만, 남석하 가사에 대한 선행 연구의 이해는 그 시가사적 위상에 대한 흥미로운 견해만큼이나 창작 동인에 대한 문제에 보다 주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남석하 가사의 창작 동인, 즉 향촌의 공간 인식에 대한 변인(變因)으로 주목받는 역사적 맥락이 부친 남극엽의 출사 체험에 기반한다는 것은 쟁점적이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당시 호남사족 사회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석하 가사가 선행 연구의 지적처럼 거시적 측면에서 19세기 관(官) 주도의 향촌 질서 재편에 따른 사족의 위상 변화 문제와 관련할지라도, 그 변별적 자질의 생성 동인이 남석하 가문만의 환경과 관련된 가능성에 대한 반문에서 전적으로 자유롭기 어렵다.⁹⁾ 요컨대, 남석하의 향촌

6) 윤지아는 문화 귀족의 용어를 통해 향촌사족의 문예활동에 기반한 자기 인식의 의미를 정의하였다. 윤지아, 「조선 중·후기 지역 문학장의 변모 양상과 江湖歌辭의 의미 지향」, 168~176쪽.

7) 윤병용은 남석하가 향촌을 사족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로서 그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단하였다. 연이은 거업의 실패를 통해 남석하에게 향촌은 강호원처나 비탄궁려 등처럼 자신의 입신을 가로막는 부정적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교화의 주체이자 사족의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해졌고, 그 결과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탈규범적 성향이 나타난 동인이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윤병용, 「남석하 가사의 특징과 19세기 향촌사족의 시적 지향」, 31쪽.

8) 윤지아, 「조선 중·후기 지역 문학장의 변모 양상과 江湖歌辭의 의미 지향」, 175~176쪽.

9) 남극엽이 63세인 1798년 御定冊子 『大學衍義』 교정에 참여하고 1800년에 교정유생(校正儒生)으로 규장각에 들어갈 수 있었던 정황만 보아도, 남극엽 가문이 지녔던 향촌사족으로서

인식과 가사 창작 간의 상관성이 18~19세기 시가사, 보다 엄밀히 말하여 조선 후기 호남 향촌사족 시가사의 교량적 구도 정립에 대한 보편적 전망을 생산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남석하 가사에 대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반론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보다는 조선 후기 호남 사족 시가사의 구도 정립을 위한 작품론적 검토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인접 시가·인접 지역에서 남석하 가문과 그 위상이 달랐던 호남 사족 시가 작품의 현실 인식과 향촌의 공간성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18~19세기 시가사의 지형을 보다 입체적인 구도에서 조망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 호남사족 시가의 다기성과 관련한 향촌 인식이 특정 가문 구성원의 출사 체험을 포함하여, 보다 다채로운 구도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죽국헌(竹菊軒) 김상직(金商稷, 1750~1815)의 시가¹⁰⁾를 주목하고자 한다. 김상직은 울산 김씨 가문 구성원으로 일생 동안 장성(長城) 남면(南面) 분향(芬香)에 거주하였던 한미한 사족이다.¹¹⁾ 그의 시가는 18~19세기 장성 지역과 관련한다는 점에서 남석하 가사와 시기적·지리적 친연성을 보인다. 본론에서 상론할 것이지만, 김상직은 장성 사족으로 활동하며 인생의 주요한 국면을 마주할 때마다 시가를 통해 그 지향을 드러냈다. 특히 그의 시가는 장성 생활에서부터 장수(長水) 은거(隱居)에 이르는 삶의 여정과 조응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자기서사적 성격을 보인다. 이에 작품에는 향촌사족의 현실 인식과 향촌의 공간성에 대한 문제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기대되

의 위상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대학연의』 교정은 훗날 정조의 특명으로 공령과(功令科) 시행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정조의 유가 사업은 왕권 강화를 위한 지지기반 확보 문제와 관련한 것인바, 당시 호남 사회의 반향은 상당하였음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을 듯하다. 정조 연간 공령과 시행에 대한 이해는 다음 논문 참조. 조일형·이강복, 「정조(正祖)의 호남(湖南) 공령과(功令科) 시행에 관한 연구 - 고경봉(高廷鳳)의 「등과시말기(登科始末記)」 분석을 통하여」, 『호남학』 58,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5, 333~362쪽.

10) 김상직의 문집인 『竹菊軒遺稿』에는 가사 <戒子詞>, <思鄉歌>와 시조 <感聖恩歌>, <入山歌>와 함께 문인(門人)인 천형복(千亨復)이 지은 <先生入山後思恩歌>도 수록되어 있다.

11) 김상직의 생애와 울산 김씨 가문의 위상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상론하고자 한다.

는바, 조선 후기 호남 향촌사족 시가의 다기성에 대한 면모를 살피는데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상직 시가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이른 시기 이상보에 의해 소개¹²⁾되었음에도 상대적으로 소략한 편이며, 그마저도 <戒子詞>에 집중되었다. <계자사>는 박연호에 의해 조선 후기 교훈가사의 전망과 관련하여 향촌사회의 처세 문제를 반영한 권학가류(勸學歌類)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작품에 나타난 가난의 시선은 조선 후기 향반화의 동향과 김상직 가문의 경제적 쇠락에 따른 현실 인식의 구도에서 평가되었고, 면학을 통한 입사(入仕)가 가문 회복의 유일한 방편이라는 믿음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견인하는 동인으로 이해되었다.¹³⁾ 안혜진 또한 19세기 향촌사족 가사의 전모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자사>가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향반 가문 구성원의 현실 인식이 반영되었음을 주장하였다.¹⁴⁾

박연호와 안혜진의 논의를 통해 <계자사>의 교화적 성격에 대한 해석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향촌이 김상직 가문의 내적 질서를 위협하는 부정적 공간으로 인식되었다는 진제를 공유하는바, 향촌의 공간성이 <계자사>의 주제 의식과 창작 맥락에 대한 검토의 주요 기제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들 연구는 교훈가사 또는 향촌가사의 전반적인 구도에서 작품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작가론적, 작품론적 성격을 세밀하게 조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계자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최근 송재연에 의해 수행되었다. 송재연은 <계자사>를 권학가의 전통에서 검토하였던 선행 연구의 시각에서 벗어나 가훈서(家訓書)와 계자류(戒子類) 시문(詩文)을 통해 교화가 집중되었던 18~19세기의 특징에 주목하여 작품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였다.¹⁵⁾ 특히 <家訓>을

12) 이상보, 「미발표 고전 : 김상직의 시가 4편」, 『현대문학』 25(7), 현대문학사, 1979, 324~328쪽; 「김상직의 죽국헌가사」, 『續韓國古典詩歌研究』, 태학사, 1984, 75~82쪽.

13) 박연호, 『교훈가사 연구』, 다운샘, 2003, 64~65쪽.

14) 안혜진, 「18세기 향촌사족 가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23~124쪽.

15) 송재연, 「金商稷의 가사 <戒子詞>에 구현된 ‘戒子’ 형상과 의미」, 『영주어문』 62, 영주어

통해 김상직의 가문 교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계자사>에 구현된 계자(戒子)의 형상과 의미를 분석하는 시각은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계자가류 가사의 존재 양상을 규명하였다는 점은 조선 후기 교훈가사의 범주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데 기여한 바가 분명하다.

교훈가사로서 <계자사>의 성격에 대한 구도 차이와는 별개로, 송재연의 연구 또한 작품에 나타난 향촌의 공간성을 가문의 내적 질서에 대한 위기의식의 측면에서 접근한 결과이다. 이는 조선 후기 향반으로서 김상직과 그의 가문이 마주한 현실적 불우함의 문제를 주목한 것이다. 이에 <계자사>는 가문 질서, 보다 엄밀히 말하여 부자 관계의 소통에 근간한 작품이라는 견해가 제언 되었다.

필자 또한 <계자사>에 나타난 향촌의 공간성에 대한 선행 연구의 시각에 동의한다. 다만 『죽국헌유고』에는 <계자사>가 김상직의 아들들에게만 향유되지 않았던 정황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은 <계자사>의 주제의식과 관련한 현실 인식과 향촌의 공간성을 김상직 가문이라는 개별적 조건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있다.

<계자사>를 제외한 김상직의 시가로는 장수 은거 이후에 고향 장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思鄕歌>가 주목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사향가>에 나타난 장성 사회를 향한 시선은 세속 지향적 태도로 평가받고, 그 동안 또한 김상직의 은거가 유가적 이념에 기반한 행위라기보다 현실 도피적 성향을 지니기 때문에 자연과의 합일에 실패한 결과라는 점이 지적되었다.¹⁶⁾ <사향가>에 대한 선행 연구는 김상직의 은거관이 반영된 <入山說>에 근간한 것이지만, 현대 연구자의 시각에서 이념적으로 문제적인 상황을 공적 발화의 문학인 노래로 불렀을지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 본문에서 상론할 것이지만, <사향가>를 비롯한 김상직의 은거와 시가 작품을 당대에는 비판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게다가 <사향가>는 제명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고향에 대한 인간 일반의 그리움과 관련한 작품이다. 이는 <사향가>가 팔공산 은거와 강호 지향을 다룬

문학회, 2026, 55~80쪽.

16) 안혜진, 「18세기 향촌사족 가사 연구」, 104~106쪽.

<입산설>과는 주제적 측면에서 상이한 텍스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김상직의 은거와 강호 지향에 대한 이해는 <입산설>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강호시조의 자장에서 산출된 <入山歌>를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입산가> 또한 작품의 문면에 향촌 사회를 향한 시선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향촌의 공간성에 대한 문제를 살피는 데 유의미한 텍스트로 판단된다.

<계자사>와 <입산가>에 대한 선행 연구의 동향은 조선 후기 향촌사족 시가사와 관련하여 김상직 시가가 나름의 위상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김상직 시가에 대한 오늘날의 이해는 작품별 검토와 관련한 쟁점적 양상뿐만 아니라, 통합적 독법에서도 상이한 시각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김상직은 유가의 도덕 준칙에 기반하여 가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지만, 한편으론 유가의 이념적 질서를 온전히 구현하지 못한 채 자연과의 합일에 실패한 존재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교훈과 강호의 주제적 차이로 해석하거나, 작품의 향유 맥락을 외적 동향의 측면 정도로 진단할 것이 아니라면, 김상직 시가에 대한 해석적 기반은 보다 진진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김상직 시가에 나타난 현실 인식과 향촌의 공간성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특히 김상직 시가의 주제의식과 관련한 이념적 갈등과 실천 의지가 향촌의 공간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인바, 이는 개별 작품론의 쟁점적 양상을 해소하고 김상직 시가의 통합적 독법 마련에 일정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왕의 논의에서 미처 다루어지지 못한 창작 및 향유 맥락을 살핌으로써 작가론 및 작품론적 검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여 조선 후기 호남사족 시가의 다기성에 대한 구도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김상직 시가 중 조선 후기 향촌사족 시가의 주요 주제인 교훈과 강호에 대한 시선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는 <계자사>와 <입산가>를 주요 대상으로 다루고자 한다.

2. 가문 질서의 확장과 귀농(歸農)의 공간: <戒子詞>

김상직은 장성 지역의 대표적인 세거 성씨인 울산 김씨 가문 구성원이었다. 주지하듯 장성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배향한 필암서원(筆巖書院)이 자리한 곳이다. 김인후는 호남 지역 사대부로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된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은 장성을 넘어 호남을 대표하는 유학자로서 그 위상을 보여준다. 이에 울산 김씨 가문은 김인후를 중심으로 여러 선양 사업을 실시하며 지역 내 사족 가문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그러나 울산 김씨 가문의 위상과는 달리, 정작 김상직의 삶은 그다지 안정적이지는 않았다. 기실 김상직 가문은 김인후를 중심으로 장성 사족 사회의 주류로 부상한 중파(中派)가 아닌, 계파(季派)에 속하는 선동파(善洞派) 구성원이었다. 선동파는 파조(派祖)인 달지(達枝)의 손자 준(俊)이 장성군 진원면 일원으로 이거(移居)하며 자리하게 되었다.¹⁷⁾ 이후 김상직의 조부 영채(永采, 1690~1747)가 진원에서 남면 길마치로 이거하고, 부친인 종진(宗鎭, 1716~1768)이 남면 분향으로 이거하며 향촌사족으로서 기반을 마련하였던 듯하다. 계파는 서수헌(逝水軒) 김응두(金應斗, 1492~1522) 대에 현달하였으나, 후손들은 중앙 정계로 진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선동파 또한 마찬가지로, 증고조인 양(陽, ?~?)부터 김상직에 이르기까지 생진(生進)을 비롯한 관료 기록이 전무한 점은 한미한 사족 가계로의 위상을 보여준다.¹⁸⁾

17) 울산 김문은 장파(長派), 중파(中派), 계파(季派)로 구성되어 있다. 장파인 달근계(達根系)는 아들 대에 함안파와 함평으로 이거하였고, 중파(中派), 계파(季派)가 장성 일원에 자리하였다. 특히 본고의 관심인 계파의 세거 정황은 다음 논문을 참조. 김봉근, 「필암서원(筆巖書院)과 울산김씨(蔚山金氏)」, 『한국계보연구』 5, 한국계보연구회, 2014, 72~74쪽. 논문의 내용은 필자가 울산김씨대동보를 통해 비교·검토하였다. 울산김씨대중회, 『蔚山金氏族譜』 卷四, 2015, 281~303쪽. 본고에서 김상직 가문의 구성원과 관련한 기록은 『蔚山金氏族譜』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18) 김상직이 서수헌 김응두의 후손인 점은 『長城邑志』에도 기록되어 있다. 『長城邑志』“金商稷 蔚山人, 號竹菊軒, 逝水軒應斗后. 天性至孝, 事父母志體俱養. 年未三十連遭內外喪, 廬墓三年, 哀毀中節. 與弟友愛, 教子有法. 有遺稿一卷.”

김상직 가문의 위기는 그가 19세에 부친을, 21세에 모친 수원(水原) 백씨(白氏, 1716~1770)를 여의며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양친을 여의기 이전에 이미 조부모도 모두 졸(卒)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은 김상직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문 질서를 정립하고 향촌사족의 위상을 유지해야 할 문제와 마주하였을 점을 가늠하게 한다.¹⁹⁾ 궁경가색(躬耕稼穡) 하는 처지에서 선대의 유훈과 향당의 규범을 돌볼 수 없었다는 사제(舍弟) 상정(商貞, 1758~1821)의 제문(祭文)은 이를 잘 보여준다.²⁰⁾

그러나 한미한 그의 가문과는 달리, 김상직은 장자(長子)로서 출사(出仕)에 대한 나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수차례 과거에 응시하였던 것²¹⁾이나, 서울에 거주하며 출사를 도모하였다는 기록²²⁾ 등을 통해 거업(舉業)에 대한 나름의 의지를 살필 수 있다.²³⁾ 다만 조부모와 양친의 이른 죽음과 연이은 거업 실패 등으로 인하여 김상직에게 향촌, 보다 엄밀히 말하여 장성 분향은 가문이 대대로 세거하며 형성한 안주(安住)의 공간이라기 보다 위기와 극복의 공간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결국 김상직이 향촌 사회에서 사족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학문 수양을 통한 이념성의 제고(提高)에 주목하게 된 정황은 자연스럽다. 사실 증고조로부터 5대에 걸쳐 가문 구성원 모두가 생진시에도 합격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앙 정계 진출에 대한 현실적 전망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을 듯하다. 따라서 그가

19) 영채는 종진이 32세의 나이, 즉 김상직이 태어나기 이전에 졸하였다. 조모(祖母)인 밀양(密陽) 박씨(朴氏, 1690~1722)도 마찬가지이다. 계조모(繼祖母)인 의성(義城) 김씨(金氏, 1693~1756) 또한 김상직이 7세에 졸하였다. 이를 통해 김상직은 조부모도 모두 부재한 상황에서 이른 시기에 양친마저 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사제(舍弟) 상정(商貞, 1758~1821) 역시 11세에 불과했다.

20) 『죽국헌유고』, <祭文> “兄非弟無所依, 弟非兄無所仰. 躬兼耕稼之勞, 何違父祖之遺訓, 且兼樵采之役, 何恤鄉黨之懿範”

21) 『죽국헌유고』, <重刊 序> “竹菊軒金公商稷, 吾鄉逸士. 以若文藝之早成, 累舉而不中, 深入長水之八公山, 若將爲卒世計.”

22) 『죽국헌유고』, <墓表> “公早成文藝, 抱四方之志, 遊京洛數年, 竟不得一試”

23) 『죽국헌유고』와 『장성읍지』, 『울산김씨대동보』 등에는 김상직의 생진시(生進試)와 관련한 기록이 전무하다. 그는 소과를 치르지 않았거나 또는 합격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냈던 정치 참여의 의지란, 그 실현 가능성보다 사족 가문 구성원의 신분 유지와 정체성 표명의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상직에게 학문 수양과 이념적 태도는 사족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절실하고, 또 유일한 대안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가문 위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戒子詞>의 주제의식을 검토한 선행 연구의 시각은 충분히 설득적이다. 그 과정에서 <계자사>의 창작 동인은 18~19세기 일상적 실천윤리의 내면화를 지향하였던 시대적 성격과 장성의 세거 사족으로서 김상직 가문의 개별적 면모가 주목받았다. 요컨대 <계자사>는 조선 후기의 향반인 김상직이 가문 질서 정립을 위한 목적에서 4명의 아들에 대한 교화의 시선을 투사한 작품이라는 것이다.²⁴⁾

선행 연구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죽국헌유고』에 수록된 제발류(題跋類)에 근간한다. 다만 『죽국헌유고』는 여러 편의 국문시가가 수록된 것과 달리 방대한 자료가 집적된 문헌은 아니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계자사>를 비롯하여 시가 작품들의 창작 및 향유 맥락과 관련한 정황을 검토할 만한 자료는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김상직의 시가는 콘텍스트(Context) 검토와 관련하여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먼저 <계자사>의 창작 맥락에 대한 이해는 쟁점적이라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계자사>가 창작된 1790년²⁵⁾은 장남인 규석(奎錫)이 17세이고, 차남인 경석(璟錫)이 10세, 3남 정석(井錫)이 7세였으며, 막내 진석(軫錫)은 태어나지도 않았다.²⁶⁾ 따라서 작품의 창작 맥락에 대한 당시의 정황은 선행 연구의 이

24) 송재연은 <계자사>가 시대와 환경을 조율하여 학문 연마를 독려하는 공적 규범의 특성을 지닌 권학가류(勸學歌類) 작품과는 변별된다고 하였다. <계자사>는 조선 후기 계자류(戒子類) 작품의 창작 및 향유 전통과 관련하여 가문 구성원인 아들들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창작된 텍스트로 정의하였다. 송재연, 「金商稷의 가사 <戒子詞>에 구현된 '戒子' 형상과 의미」, 58~59쪽.

25) 필자가 <계자사>의 창작 시기를 김상직의 나이 41세인 1790년으로 추정한 근거는 작품 내용에 기반한 것이다. 『죽국헌유고』 <계자사> “오날이느 스람될가 / 來日이느 스람될가 / 이히저히 불으다가 / 어니히느 불을손야 / **그령저령 四十되니 無惑而 有感이라**”

26) 김상직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김규석(金奎錫, 1774~1844), 김경석(金璟錫, 1781~1853),

해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교화 대상을 ‘아들들’이라는 막연한 설정이 아닌, 보다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계자사> 도입 부에서 교화의 대상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는 점을 주목해 보자.²⁷⁾

新學少生 아히덜아 이니訓戒 들어설어
 人間世上 貴한거시 學問박기 쏘이쓰라
 天地人 三才中에 人生이 最貴홀사
 禽獸와 다른뜻은 仁義禮智 이썰시라

<계자사>는 새롭게 학문을 시작하는 아이들을 호명하며 시작한다. 따라서 화자의 발화 대상을 김상직의 아들들로 한정한다면 막내인 진석을 제외한 3명의 아들을 향한 언술로 이해된다. 그런데, 장자인 규석을 동생들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지는 조심스럽다. 1790년에 규석은 성년(成年)에 해당하는 반면, 경석과 정석은 동몽(童蒙)이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17세는 성인이자 국역(國役)의 의무가 부여되는 정정(正丁)으로 분류되어 관례(冠禮)를 앞둔 시기였다. 또한 학문의 차례를 놓고 보면 사서(四書) 공부부터 시작하며 거업을 대비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초학으로 부르기 어렵다. 무엇보다 <계자사>의 창작 맥락이 교화 대상으로 하여금 직접 노래 부르게 하였다는 점²⁸⁾을 고려한다면, ‘新學少生 아히덜아’는 10세, 7세인 동생들에게 가독(家督)이자 성년인 큰형을 한 공간에서 자신들과 같은 위계로 호명시킨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점은 <계자사>의 창작 목적이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실천 윤리에 대한 자발적 각성에 있다는 선행 연구의 관점과 비교하였을 때도 쟁점적이다.

김정석(金井錫, 1784~?), 김진석(金軫錫, 1794~1846).

27) <계자사>의 주제의식과 사상 구조의 전반적 성격에 대해서는 송재연의 논의에서 상세히 수행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현실 인식과 향촌의 공간성에 대한 문제의식에 맞춰 그 특징적인 면모에 따라 작품을 검토할 예정임을 밝힌다.

28) 『죽국헌유고』, <계자사> “敎子聖學 未見意趣 故別以作歌 令朝夕歌之 似當有助於萬一也” <계자사>의 부기를 통해 이 작품의 가장 맥락은 교화의 대상에게 아침저녁으로 ‘부르게 하기’ 위해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작품의 주제의식에 대한 기대와 달리, 그 창작 시기에 대한 전제는 자칫 부친에 의해 장자의 권위가 해체될 만한 발화적 상황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자사>는 막내 진석은 제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자 규석을 교화의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역시 보다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계자사>를 장자인 규석을 제외하고 10세 경석과 7세 정석으로 한정하는 것 역시 재론의 여지가 있다. 교화 대상의 자발적 각성이라는 <계자사>의 창작 의도를 고려한다면, 작품의 주제구현방법은 10세와 7세의 동몽에게 교화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설계되었을 점을 유추하기란 어렵지 않다. 하지만 <계자사>에 나타난 전고 활용과 화자의 형상 등은 동몽의 수준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孔孟又ト 大聖人也 學問으로 道通호고

①董仲舒 司馬遷도 文章으로 되어서라

놈의富貴 부러몰고 놈의絶色 부러몰나

②勤學歌 옛말습 너히는 이겼느냐

公候鍾祿 願치말나 글ᄃ온더 잇느니라

奴婢田地 貪치몰나 글가온더 인느니라

먼저 ①은 동중서(董仲舒)와 사마천(司馬遷)을 전고로 시상을 전개하는 부분이다. 학문 수련의 당위에 대한 역사적 근거로서 이들이 지니는 위상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화자가 수많은 성인(聖人) 중 동중서와 사마천을 호명한 동인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중서와 사마천은 한(漢)나라의 유학자이자 선진(先秦) 시기로부터 내려온 유학의 도통(道統)을 계승한 인물들이자, 현실의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학문적 성취와 사회적 공명을 이룩하였다는 점에서 공통 자장을 형성한다. <계자사>의 도입부에 등장한 동중서와 사마천 전고는 <계자사> 후반부의 구성이 현실의 고난으로 학문에 전념할 수 없었던 김상직의 불우한 삶에 대한 자전적 술회로 이루어진 것과 대비되는바²⁹⁾, 이는 학문

수양을 향한 교화 대상의 문제의식을 유도하기 위한 서술적 기능을 한다.

그러나 <계자사>의 시상 구조와는 별개로, 동중서의 ‘하유삼년불규원(下帷三年不窺園)’이 지시하는 극단적 고립이나 사마천의 ‘궁형(宮刑)’과 같은 거세(去勢)의 모욕을 딛고 이룩한 성취의 이면을 10세와 7세 동몽이 내면의 각성 계기로 수용할 수 있을지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면은 ②의 전고에서도 마찬가지다. ②는 송나라 진종(眞宗)의 『勸學文』³⁰⁾을 차용한 사실이다. 이때 ‘너희는 권학을 잊었느냐’는 화자의 준엄한 언술은 수용 대상이 해당 텍스트를 일종의 사전 지식으로 갖추고 있음을 전제한다. 주지하듯 진종의 『勸學文』은 『古文眞寶 前集』 첫면에 수록된 텍스트이다. 『고문진보』가 과거 시험을 위한 교보재로 기능하였던 점을 보면, 최소 7세 동몽의 학습 대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³¹⁾

기실 텍스트 학습의 선후 문제를 논외하더라도, 진종의 『권학문』은 학업의 동기부여를 물질적 풍요와 처첩 봉양 등에 기반하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부귀와 미인의 메타포를 통한 학문적 성취와 세속적 성공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10세와 7세의 동몽에게 학문 수양의 자발적 감화로 기능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³²⁾ 요컨대 <계자사>가 교화의 효용성에 대한 창작 주체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텍스트임을 고려한다면, ①과 ②는 교화

29) 송재연, 「金商稷의 가사 <戒子詞>에 구현된 ‘戒子’ 형상과 의미」, 70~75쪽.

30) 전문은 다음과 같다. 『古文眞寶 前集』 <眞宗皇帝勸學> “言人能勤學則榮貴，後自有良田好宅僕從妻妾之奉也。富家不用買良田，書中自有千鍾粟。安居不用架高堂，書中自有黃金屋。出門莫恨無人隨，書中車馬多如簇。娶妻莫恨無良媒，書中有女顏如玉。男兒欲遂平生志，六經勤向窓前讀。”

31) 『고문진보』는 시문 학습이나 과거 준비를 위한 필독서로 여겨졌다. 무엇보다 『고문진보』가 사서(四書) 이후의 학습 단계로 주목받았던 점을 보면, 최소한 7세 아이를 향한 선행 학습 자료로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조선시대 『고문진보』의 간행과 당대의 인식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였다. 김시내, 「고려 말·조선시대 『古文眞寶』의 수용과 확산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102~123쪽.

32) 송재연은 <권학가>가 젊은 자제들을 대상으로 학문 수양의 올바른 태도에 대한 제언에서 소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송재연, 「金商稷의 가사 <戒子詞>에 구현된 ‘戒子’ 형상과 의미」, 71~72쪽. 그런데 10세와 7세의 동몽은 젊은 나이로 보기 어렵다.

대상의 학문과 인지 수준을 적절히 반영한 예시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이를 교훈시가와 관련한 일종의 문학 관습적인 태도로 치부하기에 앞서 ③에 나타난 출처의식(出處意識)을 살펴보도록 하자.

③아모리 窮困한 달 學問을 바히말나
 晝耕夜讀 흐면 古蹟을 이즐손나
 有莘의 녀운들에 伊尹을 三聘하며
 南陽지른 草廬中에 孔明을 三顧한다

주지하듯 이윤(伊尹)과 공명(孔明)은 경제와 은둔의 주제를 다룬 텍스트에서 빈출도 높은 전고들이다. 이들 전고가 사대부 출처의리의 현실적 맥락과 이념적 당위에 대한 역사적 증거물로 기능할 수 있는 이유는 수기와 치인에 대한 사대부 일반의 지향을 반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이윤과 공명의 전고가 입신양명(立身揚名)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교화의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화의 대상이 이들 전고의 이면에 담긴 정치적 메타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선시대 동몽 교육의 핵심은 일상의 생활 감각에 기반한 효제충신의 실천 윤리와 인격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는 ③에 반영된 출처의식을 수용 주체가 일상 생활의 전범적 가치로 내면화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대부로서의 직분에 대한 자기반성적 태도를 요구하는바, 이를 10세와 7세를 향한 동몽 교육의 수준에서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이처럼 <계자사>에 구현된 전고들은 특정 연령의 동몽을 향한 교화의 실용성이 반영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교훈가류 텍스트들의 주제구현 과정에서 빈출도 높게 다루어지는 코드(Code)들에 가깝다. 이와 같은 면모만 보아도 <계자사>의 창작 맥락에 대한 기왕의 논의들은 작품의 창작 시기에 건주어 볼 때 쟁점적 전망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필자는 그 해석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먼저 작품에 구현된 김상직의 자전적 술회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어화 설운지고 이니身勢 子子호야
 父母를 早喪호고 浮萍世에 托身호야
 月懸燈 山水間에 竹菊軒 지어두고
 님즈엄는 淸風明月 혼즈못더 희롱터니
 陋巷簞瓢 그뉘런고 安貧樂道 못호야서
 書冊을 호즉호고 歸農이 已久로다

위의 인용문은 <계자사>의 말미에 김상직이 자신의 생애를 서술한 부분이
 다. 교화 대상에 대한 권계의 여조로 이루어진 전반부와 대비하여 시상의 전환
 이 이루어진바, 수용자로 하여금 화자의 발화에 대한 주제적 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흥미로운 점은 안빈낙도(安貧樂道)와 귀농(歸農)을 향한 화자의
 대립적 시선에 있다. 귀농은 서책을 통한 학문 수련이 불가능한 처지이자 안빈
 낙도의 이념적 삶과 대립되는 상태로 나타난다. 그 과정에서 화자가 속한 향촌
 은 이념적 위기를 유발하는 문제적 공간으로 인식된다. 화자는 귀농을 사족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이라기보다, 이념적 삶에 대한 지향을 저해하
 는 요인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에 <계자사>에 나타난 현실 인식과 향촌의 공
 간성은 분향 사족으로서 자신의 처지가 대안적 삶으로 취택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라는 의식을 전제한다.

따라서 <계자사>를 10세와 7세 아들을 향한 부자(父子) 간의 소통 맥락으
 로 이해한다면, 김상직은 어린 두 아들에게 분향의 세거 사족이자 가장인 자신
 의 처지가 대안적 삶에 놓여 있음을 선언하는 한편, 불우한 삶을 영위하였던
 부친에 대한 연민(憐愍)과 학문 수련을 향한 자기반성적 태도를 함양하길 기
 대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계자사>의 주제구현방법과 관련한 전고 양상
 처럼 10세와 7세를 향한 교화의 실효성 측면에서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창작 주체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자성적 태도를 문면에 노출한 정
 황은, 교화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유의미할 것이라는 그 나름
 의 판단과 관련한다. 따라서 <계자사>의 작품론적 이해를 진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텍스트의 향유 맥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인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 자료는 주목할 만하다.

城市鬧塵 마다시고 八公烟月 촌즈드니

商山の 高風이요 富春의 淸節이라

우리ㄴ튼 塵心이야 仰望不及 뿐이로다

前溪上에 餞別하고 揮泣하며 도라오니

宛然한 竹菊軒은 半空에 놀파잇고

㉠擊蒙戒詞 講習樹는 綠陰만 흐터인너

私情을 못이기에 三台峰 에 올라가니

(중략)

우리受敎 諸生들아 어니스이 亂坐한가

朝夕勸學 눈에숨숨 晝夜敎訓 귀에징징

㉡家訓戒詞 집곶뜻은 紙上空言 뿐이로다

思鄉曲 술피보니 故園物色 못이짓네

竹菊軒下 우리諸員 門生楔를 罷치말고

常時에 뵈온득기 千秋影堂 지어노코

生時畫像 모헤니여 終身虔奉 하여서라

위의 인용문은 김상직의 문생(門生)인 천형복(千亨復, ?~?)이 지은 <先生入山後思恩歌>³³⁾의 일부이다. 김상직은 1808년에 세거지인 장성 분향을 떠나

33) <先生入山後思恩歌>는 부기(附記)가 전하지 않아서 정확한 창작 시기를 고증하기 어렵다. 다만 “常時에 뵈온득기 千秋影堂 지어노코 / 生時畫像 모헤니여 終身虔奉 하여서라”라는 내용으로 보아 김상직의 물년인 1815년 이후에 창작된 것으로 짐작된다. 작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죽국헌유고』 <先生入山後思恩歌> “人間世上 離別中에 有情不忘 더욱 섭다 / 君師父 一體事는 先儒氏 일은말슴 / 不肖無狀 우리諸生 뉘아니 아를손가 / 父母懷中 免후後에 先生脚下 追從하니 / 城市鬧塵 마다시고 八公烟月 촌즈드니 / 商山の 高風이요 富春의 淸節이라 / 우리ㄴ튼 塵心이야 仰望不及 뿐이로다 / 前溪上에 餞別하고 揮泣하며 도라오니 / 宛然한 竹菊軒은 半空에 놀파잇고 / 擊蒙戒詞 講習樹는 綠陰만 흐터인너 / 私情을 못이기에 三台峰에 올라가니 / 元帥峰이 어더런고 白雲外에 一拳이라 / 人間에 憤恨거시 貧寒의 所關이라 / 一束石魚 仰呈하니 萬分恩德 갑플손가 / 花朝月夕 생각하니 九曲肝腸 다석는다 / 一身이 구름되야 잠간ㄴ 뵈옵고져 / 慙慙한 脚下情은 百年을 미더쩌니

서 장수(長水) 팔공산(八公山)으로 은거(隱居)하게 된다. 이후 4년이 지난 1812년에 회향(回鄉)을 하고 1815년에 졸하였다. 이에 그의 문인들이 김상직을 기리며 영당(影堂)을 건립하고 문생계(門生契)를 파하지 말 것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의할 점은 ㉠의 “擊蒙戒詞 講習樹는 綠陰만 호터이니”를 통해 <계자사>가 김상직에 의해강습되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擊蒙戒詞”를 <계자사>로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죽국헌유고』에서 “戒詞”의 명칭이 확인되는 유일한 작품이 <계자사>라는 점이다. 특히 <계자사>의 도입부에서 “新學少生 아히덜야”라는 화자의 말화는 작품의 교화 대상이 학문을 새롭게 배우는 아이들인 몽유(蒙幼)와 관련되는바, “擊蒙”은 <계자사>의 주제를 관류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여타의 고전시가 작품들처럼 <계자사>라는 제명(題名)이 창작 당시에 고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죽국헌유고』는 중간(重刊) 과정에서 오준선(吳駿善)의 <舊序>를 수록하였는데, <訓子歌>로 기록되어 있다.³⁴⁾ <격몽계사>, <훈자가>, <계자사> 등의 호칭은 작품이 교화적 맥락에 대한 진순 주체의 판단에 따라 다채롭게 명명될 수 있는 유동성을 지녔음을 시사한다. 이는 <계자사>라는 제명에 기반하여 작품의 존립 여부를 한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의 “家訓戒詞” 또한 “擊蒙戒詞”처럼 유동성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家訓戒詞”는 『죽국헌유고』에 수록된 <家訓>에 대하여 계사(戒詞)를 수식어로 붙인 사례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제명의 유동성과 <선생입

／一朝에 拜別히니 鄙客이 萌心이라 / 우리受敎 諸生들아 어니스이 亂坐호가 / 朝夕勸學
눈에습습 晝夜敎訓 귀에징징 / 家訓戒詞 집폰뜻은 紙上空言 뿐이로다 / 思鄉曲 슬퍼보니
故園物色 못이것니 / 竹菊軒下 우리諸員 門生楔를 罷치말고 / 常時에 뵈온득기 千秋影堂
지어노코 / 生時畫像 모헤니여 終身虔奉 히여셔라”

34) 『죽국헌유고』, <舊序> “余觀近古竹菊軒金公遺稿, 詩文若僅成一冊, 甚寂寥矣. 雖然, 其性情之正, 行義之高, 亦略可見. 盡讀其責子詩訓子歌諸作, 則知其躬行孝友, 齊家以正也. 讀感聖恩歌隆陵追輓詩, 則知其畎畝憂國, 孤忠炳然.”

산후사은가>의 강습 정황들을 고려할 때, 김상직의 가문 질서에 근간한 교화적 맥락에서 산문인 <가훈>과 운문인 <계사>를 포괄하는 범칭 또는 병칭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무엇보다 <가훈>이 <선생입산후사은가>에서 호명될 수 있었던 동인은 김상직의 가문 교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가문 내적 구성원을 넘어 향촌 사회 질서로 확장된 것과 관련한다. 『죽국헌유고』에는 전·후편의 <가훈>이 수록되어 있는데, 전편이 가문 내의 자제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후편은 ‘소자(嗟嗟小子)’와 ‘후학(嗟爾後學)’을 대상으로 향촌 사회 구성원으로서 유교 이념의 내면화를 강조하는 내용이다.³⁵⁾ <가훈>에 반영된 김상직의 가문 질서란 부자 관계를 넘어 장성 분향을 위시한 향촌 사회의 자제들로 확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선생입산후사은가>에서 <가훈>을 문도의 학습 대상으로 호명할 수 있었던 동인 또한 김상직의 가문 질서에 근간한 향촌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련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계자사>의 강습 정황 역시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35) 『죽국헌유고』의 <가훈>에 대한 이해는 송재연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송재연, 「金商稷의 가사 <戒子詞>에 구현된 ‘戒子’ 형상과 의미」, 59~65쪽. 송재연은 <가훈>과 <계자사>를 김상직의 교화의식 측면에서 공통 자장을 형성하지만, <가훈>이 교화의 편폭이 향촌 윤리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 것과 달리 <계자사>는 가문 내의 자제들로 한정된 작품으로 이해하였다.

<가훈> 후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가훈> “天地萬古之逆旅, 日月百代之過客, 人物一世之蜉蝣也, 人物之盈於天地之間者, 葱蔥焉, 林林焉, 其爲性萬萬不同焉. 人則通, 物則塞, 人之惡者, 可化而物之惡者, 不可化也. 是故, 草木則芳者自芳, 惡者自惡, 禽獸則祥者自祥, 不祥者爲不祥. 雖芳者, 不可使惡者爲芳, 雖祥者, 不可使不祥者爲祥, 則善小惡多, 固其宜也. 至於人則不然, 同得天地之理以爲性, 同受天地之氣以爲形焉, 則豈必惡人多而善人少乎? 彼芝蘭也, 春桂也, 鸞鳳也, 麒麟也, 皆爲祥瑞之物而人皆貴之, 蕭艾也, 荆棘也, 烏鳶也, 犬豕也, 皆爲不祥之物而人皆賤之. 一天地間萬物之中, 何以爲貴也, 何以爲賤也. 營巢愛子者, 禽獸也, 奉先教子者, 人道也. 古之人愛子贈捧, 今之人愛子贈飯. 古之君子過則改之, 今之君子過則順之.

嗟嗟小子, 以物喻汝, 去其舊穢, 克率天性. 世或有自暴自棄者, 相惑曰, 忠孝者無後, 行惡者有福, 此皆助桀爲虐者也. 孔穎之厄, 盜跖之壽, 天之未定, 不可信也. 每與鄉人處, 勿存矜高之色, 以濟人利物爲心而傷人害物之事, 不接於心術, 則萬善俱足, 百殃不至. 嗟爾後學, 不信吾言, 則古來善惡興亡, 歷歷載史, 厥鑑亦明矣. 至於行祀之節, 則盛備成樣, 稱其家有無而誠則在人. 祭需各品逐月預備, 寤寐不忘. 早稻登場, 先度其用, 秋陽暴乾, 精白春之, 藏之潔淨處, 當祭之時, 更春去糠, 勿以宿水沅之, 泉井雖遠, 沒新水用之, 勿苟得其非理之物, 可也.

것이다.

<선생입산후사은가>가 김상직의 문도 간에 동문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에서 창작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계자사>의 향유 맥락에 대한 이해는 보다 분명해진다. <계자사>의 강습 상황에 대한 천형복의 호명은 이 작품이 김상직의 아들들만을 위한 사적(私的) 맥락을 넘어 문인 일반을 향한 발화로 기능했던 정황을 시사한다. 기실 <계자사>의 향유 맥락을 부자 관계로만 한정할 경우, 문인들에게 강습할 수 있었던 동인을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은 <계자사>에 담긴 가문 질서에 대한 시선이 문도를 포괄하는 범주에서 설정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김상직이 가문 질서 정립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계자사>, <가훈> 등을 문도에게 강습할 수 있었던 맥락은 그의 가문이 선동과 구성원으로서 장성 남면 일원에 세거(世居)하였던 정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앞서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남면은 울산 김씨 가문 계파의 파조인 달지(達枝)의 손자 준(俊)이 이거한 진원면과 지근거리에 위치한 곳이다.³⁶⁾ 김상직은 평소 서수현 묘역이 있는 수류촌을 왕래³⁷⁾하고 문회(門會)에 참가하는 등³⁸⁾ 선동과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하였다. 그가 조부모와 양친의 상고(喪故)에도 사족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동인은 분향 일원의 혈연적 네트워크가 주요했을 것은 자명하다.

이와 함께 영양 천씨 가문과 그 구성원인 천형복의 사족적 위상 또한 고려할 만하다. 천형복은 분향 사족인 상산(商山) 김씨 가문과 통혼(通婚)을 한 인물이다. 비록 천형복의 생몰연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가 김재영(金在瑛, 1848~1922)의 외조부라는 점³⁹⁾에서 18세기 후반을 전후하여 활동하였을 것으로

36) 네이버 지도 기준 두 지역은 7킬로미터 정도이다. 사제인 상정이 양자를 간 울곡리 역시 네이버 지도 기준 4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다.

37) 김상직이 진원면 수류촌을 왕래한 정황은 『죽국헌유고』에서 확인된다. 『죽국헌유고』, <乙未八月既望過水村懷古>, <附次韻族姪鴻錫>, <又過水村感吟二首> 등이 대표적이다.

38) 『죽국헌유고』, <甲寅春門會時作>

39) 천형복의 생몰연도는 정확하지는 않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潁陽千氏族譜』(1815년)에는

집작된다. 또한 『장성읍지』에는 영양 천씨 가문이 남면 분향에서 여러 차례 대외 활동을 수행한 정황⁴⁰⁾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천형복 역시 김상직의 생전에 영양 천씨 가문 구성원으로서 남면 분향 사회의 인적 네트워크와 관련한 인물로 여겨진다. 요컨대, 천형복이 김상직 문인으로 활동하였던 정황에는 남면 분향이란 물리적 거주지를 공유하였던 울산 김씨 가문과 영양 천씨 가문 간의 연대가 바탕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정리하자면, 남면 분향은 혈연적(血緣的)·지적(知的) 네트워크가 교직(交織)되었던 공간이라는 점이다. 김상직에게 향촌은 기본적으로 누대에 걸쳐 구축된 가문 질서에 기반한 향촌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자신의 불우한 경험에 근간한 자전적 술회를 통해 향촌사족 자체들의 교화를 의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계자사>는 자신의 가문을 포함하여 남면 분향 일원 사족 자체 일반을 향한 학문적 결속과 이념적 지향을 독려하기 위한 ‘향촌 사회의 공적 텍스트’로서 그 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작품 내부에 사족 일반의 문제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거시적인 전고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이유 역시, 교화의 대상을 특정 연령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가문 자체를 포함하여 문인 일반을 향한 발화에 기반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향촌 사회의 공적 텍스트’로서 <계자사>의 위상은 작품에 나타난

천형복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襄陽千氏大同譜』(2019)에서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천형복을 김재영의 외조부로 추정된 근거는 고광선(高光善, 1855~1934)의 『弦窩遺稿』 <竹林金公在瑛墓碣銘>을 참고한 것이다. 高光善, 『弦窩遺稿』 <竹林金公在瑛墓碣銘> “金君正基 謁其高祖松廈公顯刻, 又起而請曰, 先考竹林公, 於松廈公爲曾孫, 克趾先徽, 宜有阡銘. 願卒惠焉. 謹按公諱在瑛, 字益瑞號竹林, 金氏, 商山人. 甫尹諱需, 侍中諱清平諱希逸, 箕城君諱忠顯於麗朝. 原從功臣領中樞諱玄寶, 參奉諱忠傑, 贈工議諱筠, 并仕國朝. 曾祖松廈公諱鎮觀, 祖貴澈, 考燦宗, 連世儒行. 妣襄陽千氏, 父亨復, 花山君萬里后. 以憲廟戊申六月二十五日, 生公于長城南面芬香里第.”

- 40) 『장성읍지』 “望哭壇碑在南面芬香里後嶺. 孝子千福喆所築. 曾孫鳳根繼其志面豎碑, 松沙奇字萬銘曰, 子祖花山君 …”; “臥松堂在南面芬香里, 教官千福持休息所. 玄孫世旭肯構, 良齋田愚撰上梁文, 松沙奇字萬記”; “香圃亭在南面芬香里. 贈嘉善千洛鎬藏修所. 良齋田愚撰上樑文, 松沙奇字萬記, 後石吳駿善重修記” 望哭壇, 臥松堂, 香圃亭 등에 대한 기록은 영양 천씨 가문이 지닌 장성 남면 분향 사회의 위상을 보여준다.

향촌의 공간성이 김상직 가계라는 개별적 조건을 넘어 향촌 단위의 범주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앞서 살핀 것처럼 향촌은 안빈낙도와 대립하는 귀농(歸農)의 공간, 즉 수기의 이념적 태도에 대한 위기의식을 유발하는 공간으로 묘사되었음을 상기해보자. 이에 기반한 김상직의 자성적 태도가 교화의 방법론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동인은 <계자사>에 나타난 향촌의 공간성, 보다 엄밀히 말하여 귀농(歸農)의 공간으로 표상된 이념적 위기의식에 대한 이해가 김상직 개인의 문제를 넘어 장성 남면 분향 일원의 사족 구성원들이 마주한 보편적 문제의식에 기반하였기 때문임을 보여준다.⁴¹⁾

3. 시비(是非) 갈등의 대응과 거류(去留)의 공간:

<入山歌>

김상직은 교훈가사인 <계자사> 뿐만 아니라 강호시조의 자장에 속하는 <入山歌>를 창작하였다. <입산가>는 총 2수로 구성된 작품인데, 향촌 사회를 향한 화자의 시선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흥미롭다. 고전시가의 전범적 주제로서 강호의 공간에 대한 이해가 세속과의 격절성을 전제한다는 점과 비교할 때 이질적이다. 이에 <입산가>의 향촌 사회를 향한 시선은 조선 후기 호남 사족 강호시가에 담긴 향촌의 공간성을 살피는데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41) 이와 관련한 문제의식은 <선생입산후사은가>에도 확인된다. 향촌을 진세(塵世)로 수사하는바, 이를 통해 김상직의 문인들도 향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人間世上 離別中에 有情不忘 더욱쉽다 / 君師父 一體事는 先儒氏 일은말슴 / 不肖無狀 우리 諸生 誰아니 아를손가 / 父母懷中 免後에 先生脚下 追從히니 / 城市鬧塵 마다시고 八公 烟月 츠즈드니 / 商山의 高風이요 富春의 清節이라 / 우리그든 塵心이야 仰望不及 썩이로다”

물리 기러 長水런가 城이 기러 長城인가
 長水長城 兩長間에 入山男兒 去留地라
 아마도 긴장조 혼나이야 어이질이 이즐손나 <入山歌 1>

八公山 조탄말을 예듯고 이제보니
 千峰에 白雲이오 萬壑에 烟氣로다
 아마도 武陵桃源이 이게 긴ㄴ 흥노라<入山歌 2>

<입산가>는 김상직이 59세인 1808년에 장성을 떠나 장수(長水) 팔공산으로 은거하며 창작한 시조이다. 성리학적 사유 체계에 근간한 도학적 지향이나, 정치 참여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사대부의 출처의리에 대한 전범적 태도 등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작품의 주제의식은 창작 주체의 은거 체험에 근간한 삶의 지향이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입산가 1>은 장성에서 장수 팔공산으로 이거하는 상황을 노래한 것이며, <입산가 2>는 이거 이후 장수 팔공산을 강호의 공간으로 형상화한 내용이다. 이는 <입산가 1~2>가 장수 팔공산 은거와 강호 지향의 측면에서 일정한 의미적 연쇄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실 단일 텍스트로서 <입산가 1>의 외연만을 보면 전통적인 강호시조의 창작 관습에 근간하기보다는 장수 은거 이후 장성에 대한 향수(鄉愁)를 토로한 작품에 가깝다. 그러나 초·중장에서 ‘長’을 중심으로 장성과 장수 간의 어휘적 친연성을 거듭 강조하는 화자의 태도는 자신의 은거 공간을 ‘去留地’로 명명하는 논리적 전제가 된다. 이는 장성 사회를 향한 화자의 시선이 인간 보편적 정서의 발현을 넘어 은거 공간의 의미를 구축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去留’는 도연명 모티프와 관련하여 세속에 구애받지 않는 은자(隱者)의 심리적 자유를 표상한다.⁴²⁾ 따라서 ‘去留地’는 은일자적하는 은자의 공간을 지칭

42) 거류(去留)와 관련하여 동북아시아의 고전문학에서 토포스(topos)로 자리한 도연명(陶淵明) 모티프는 참고할 만하다. 거류는 도연명의 출처관과 함께 은일자적한 삶의 태도를 수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문학관습적 의미가 반영된 시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초장과 중장의 시상은 은일 모티프에 기반하면서도, 장성(去: 떠나온 곳)과 장수(留: 머무는 곳)라는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맥락과 관련하는바, ‘去留’와 관련한 의미적 전유(專有)가 발생하는 동인이 된다. 그 결과 관념적 자유의 표상인 ‘去留’는 화자의 이거(移居) 행위와 관련된 실존적 맥락과 결합하여 은거지를 과거와 현재가 교직(交織)된 공간으로 구체화하기에 이른다. 장수 은거지는 세속과 격절된 관념적 별천지에서 벗어나 장성 사회와의 심리적 연속성을 획득하고, 이는 중장에서 장성을 향한 불변의 그리움으로 고조되며 ‘去留地’의 공간성을 외부와의 완전한 단절이 아닌 떠남과 머무름이 공존하는 삶의 연장선에서 수사(修辭)하게 된다.

‘去留地’의 공간성은 <입산가 2>에서 은거지인 팔공산을 강호의 공간으로 명명(命名)하며 더욱 구체화된다. 특히 초장의 ‘예뎃고 이제보니’는 팔공산 산수를 향한 화자의 동경이 은거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었음을 암시한다. 기실 가문의 세거지를 이거하는 행위가 아무런 현실적 기반 없이 실현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죽국현유고』에는 김상직이 장수 은거 이후 비교적 빠른 시기에 지역 사족과 교유하였던 정황⁴³⁾이 확인되는바, 특히 그가 장수 관아

사하는 용어로서 <五柳先生傳>과 <歸去來辭>에 출현한다. 두 작품은 모두 『고문진보』에 수록되어 전한다. 『古文眞寶 後集』, <五柳先生傳> “先生 不知向許人 亦不詳其姓字 宅邊有五柳樹 因以爲號焉 閑靖少言 不慕榮利 好讀書 不求甚解 每有意會 便欣然忘食 性嗜酒 家貧 不能常得 親舊知其如此 或置酒而招之 造飲輒盡 期在必醉 既醉而退 曾不吝情去留(후략)” 『고문진보 후집』 <歸去來辭> “... 歸去來兮 請息交以絕遊 世與我而相違 復駕言兮 焉求 悅親戚之情話 樂琴書以消憂 農人 告余以春及 將有事于西疇 或命巾車 或棹孤舟 既窈窕以尋壑 亦崎嶇而經丘 木欣欣以向榮 泉涓涓而始流 羨萬物之得時 感吾生之行休 已矣乎 寓形宇內復幾時 曷不委心任去留 胡爲乎遑遑欲何之 富貴 非吾願 帝鄉 不可期 懷良辰以孤往 或植杖而耘耔 登東臯以舒嘯 臨清流而賦詩 聊乘化以歸盡 樂夫天命復奚疑”

- 43) 광주 이씨의 존재가 대표적이다. 광주 이씨는 뒤이어 살펴볼 팔공산 은거에 대한 심정을 담은 <入山說>에서도 확인되는바, 김상직이 은거하기 이전부터 팔공산을 먼저 점유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죽국현유고』 <입산설>, “隣鄉李友, 先擅別區之烟月, 共作閒中之樂事, 亦一勝妙也.”) 그가 김상직의 은거 이후 불과 몇 달 되지 않아 줄하였다는 사실을 보면, 김상직이 장수 은거 이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교유하였을 점을 가늠하게 한다. 『죽국현유고』 <謹輓光州李丈> “... 오랫동안 이웃 고을에 덕을 베풀시더니, 마침내 타향의 나그

(官衙)에 여러 차례 초빙을 받았던 정황⁴⁴⁾은 은거 이후 장수 사회의 인적 네트워크에 안정적으로 편입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김상직이 은거 이전부터 장수 사족 사회와 일정한 접점을 형성하고 있었을 정황을 가늠하게 한다.

따라서 초장의 발화는 장수 팔공산의 심미성에 대한 문학적 수사이면서도 창작 주체의 은거와 관련한 현실적 맥락을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결국 화자의 강호 지향은 과거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통시적 맥락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종장의 무릉도원 모티프를 통해 구축된 강호 공간을 향한 화자의 미적 성취와 예찬적 태도 또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감각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처럼 <입산가>에서 장성 사회를 향한 화자의 그리움은 강호의 공간성과 결합하여 화자의 은거지를 ‘거류지’로 형상화하는 전제로서 기능한다. 그 결과 의미적 연쇄의 측면에서 형성된 <입산가>의 시상은 강호와 세속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향촌 사회를 향한 시선과 강호 지향을 통섭하는 길항(拮抗) 구조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이때 <입산가> 길항 구조의 축인 향촌을 세속을 향한 미련의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입산가>는 강호를 지향하면서도 자신의 이념적 한계를 자인(自認)하였다는 의미적 모순으로 귀결된다. 이 경우 <입산가>에 구현된 화자의 태도는 일종의 위장적 포즈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김상직의 은거는 59세의 고령에 집안 구성원 전체와 함께 수행된 결과였다. 당시 장남인 규석과 차남인 경석이 성가(成家)한 시기⁴⁵⁾임을 고려

네로 슬픔이 되셨네. 이웃이 된 지 이제 몇 달이던가, 서로 어울린 지 일년도 되지 않았네. 여든아홉의 보기 드문 나이에 이르셨으니, 저승과 이승은 도리어 속임수가 있는 듯하네. (중략)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선을 쌓으셨기에, 팔공산 좋은 터를 점지 받으셨는가. 갈림길에서 차마 이별하지 못하고, 눈물을 뿌리며 영이(靈輻)를 받드네. 상연소리 슬픈 노랫가락으로 울려 퍼지니, 억눌러도 그리운 마음 봉할 길이 없네. 고향 떠난 이별 더욱 한스러워, 억지로 한 수의 시를 지어 올리네. … 長爲隣鄉益, 竟作寓客悲. 結鄰間幾月, 相携還未基. 稀齡今八九, 幽明却有欺. (중략) 處世幾積善, 八公卜吉基. 臨岐不忍別, 揮泣奉靈輻. 薤歌動哀詞, 掩抑末絃思. 離鄉別有恨, 一律強成之.”

- 44) 『죽국헌유고』 <長水衙中吟> “八公食川上, 我屋門以席. 屢蒙傾送騎, 不敢偃臥宅. 雲泥跡雖懸, 山水韻或適. 緜緜情無已, 留人以永夕” 八公食川은 김상직이 은거한 팔공산 식천 지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입산설>, “艷碧溪山水之俱足, 移接于八公山元岵下. 食川乃長水之溪南也.”)

할지라도, 장수 은거가 가문 단위의 과업이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떠났다는 사제 상정의 제문은 당시의 정황을 가늠하게 하는데,⁴⁶⁾ 장수 은거의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를 텍스트로 구현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입산가>의 길항 구조에 대한 이해는 방법론적 측면에서라도 강호와 세속 간의 이분법적 구도를 잠시 유보하고 그 창작 맥락에 대한 문제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팔공산 은거에 대한 지향을 담은 <入山說>를 살펴보고자 한다.

㉠ 늙은이는 본래 오산(鰲山)⁴⁷⁾의 명문가 출신으로 대대로 구진(丘珍)⁴⁸⁾에 살면서 향촌(香村)⁴⁹⁾의 어진 풍속을 즐기고 대나무와 국화의 높은 절개를 사랑하여 평생의 계책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옛날 같지 않고 세상이 나와 어긋나니 매번 시끄러운 속세의 질은 더러움에 싫증이 나매, 비로소 임천(林泉)에는 거리낌이 없음을 깨달았다. 상산의 사호(四號)가 본래부터 상산의 늙은이였겠으며, 부춘의 엄자릉(嚴子陵)이 어찌 부춘 사람이었는가.

이에 아랫말에 물 대기가 여의치 않음을 안타까워하고 벽계(碧溪)의 산수가 모두 만족스러운 것을 부러워하여, 팔공산 으뜸가는 산봉우리 아래로 거처를 옮겼다. 식천(食川)은 바로 장수(長水) 계곡의 남쪽이다. 며칠을 노닐다가 신선이 사는

45) 규석의 장자인 지원(金址源, 1803~?)이 차남인 경석의 장자로 출계(出系)하였다는 점을 보면, 적어도 장수 이거 당시인 1808년에 규석과 경석이 모두 혼인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경석은 1806년 둘째 아들인 태원(金台源, 1806~?)을 낳았다. 김상직이 은거할 당시 성 혼한 두 아들도 데리고 갔을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다만 <次四從弟商巖贈別韻>을 통해 장수 이거 이후 죽국헌을 돌볼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는 내용으로 보아 가문 전체의 이거 상황도 가늠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죽국헌유고』 <次四從弟商巖贈別韻> “臨發喜看贈慰律，故園忍別吾行遲。軒菊庭萱如有感，誰從我後愛憐之”

46) 『죽국헌유고』 <제문> “戊辰，兄主偶作左峽搬移之行，率眷大歸，若將不返者然。至情到此，復何如哉?”

47) 장성현(長城)의 이칭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 36권, <전라도 장성현>

48) 진원현(珍原)의 이칭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36권, <전라도 진원현>

49) 남면 분향(芬香)의 이칭으로 보인다. 이는 팔공산 은거의 심사를 술회한 <自敘>를 통해 유추하였다. 『죽국헌유고』 <自敘> “白雲深處是八公，管寧自欲老遼東。波生鏡面如斯逝，霧繞蘿衣何彼濃。此翁曾飲香山水，今日還飽食川蔥” 食川은 <입산설>에 확인된다. 장수 계곡의 남쪽에 위치한 지명이다.

듯한 구역을 차지하니, 맑고 차가운 물과 돌이 나의 속된 마음을 씻을 만하여, 구름 낀 숲 속을 지팡이 짚고 거닐며, 돌길 위에서 신선의 자취를 밟고자 하였다. ㉠ 이웃 마을의 이(李)씨 벗이 먼저 별천지의 연월(烟月)을 점유하고 있었으니, 함께 한가로운 가운데 즐거운 일을 도모하는 것이 또한 하나의 뛰어난 묘미였다. 이에 팔공산의 한쪽 면을 나누어 독립된 별천지로 삼았다.

바위에 핀 꽃과 숲에 지지귀는 새들은 고반(考盤)의 골짜기에서 노닐고, 담쟁이덩굴에 비친 달과 소나무 사이에 부는 바람은 세이(洗耳)의 샘을 은은하게 비춘다. 물소리에 귀먹고 산 모습에 병어리가 되니, ㉡ 항상 세상의 시비(是非)가 귀에 들릴까 두려울 뿐이다. 속세 사람들은 또한 은자를 비웃지 마시게. (은자의: 필자 주) 공업(功業)이란 오직 흰 구름 다스리는 것일 뿐이니.⁵⁰⁾

<입산설>에는 장수 이거에 대한 계기와 팔공산 은거 이후의 삶에 대한 지향이 나타난다. 먼저 ㉠은 장수 이거를 전후하여 김상직의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그는 본래 울산 김씨의 세거지인 장성 분향을 벗어날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김상직은 1790년을 전후로 죽국헌을 건립하고 <계사사>를 작성하여 분향 일원 사족 사회의 이념적 고양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문중 행사에도 지속적으로 참석하였다. 1800년 정조(正祖, 1752~1800)가 승하(昇遐)하자 목호정(牧虎亭) 일원의 곡반(哭班)에 참여하여 시조⁵¹⁾와 한시⁵²⁾를 남긴 정황⁵³⁾은 장수 은거와 비교적 인접한 시기까지 울산 김씨 가문의 구성원

50) 『죽국헌유고』 <입산설> “㉠翁本鰲山甲族, 世居丘珍, 樂香村之仁俗, 愛竹菊之高節, 將爲百年之計矣. 人心不古, 世與我違, 每厭閭閻之多汚, 始覺林泉之無禁. 商山四皓, 本非商山之老, 富春子陵, 豈是富春之人乎. 是憫下田灌溉之不瞻, 艷碧溪山水之俱足, 移接于八公山元岬下. 食川乃長水之溪南也. 數日盤游, 占得仙區, 清冷水石, 滌我塵心. 擬杖屨於雲林, 躡仙蹤於石逕. ㉡隣鄉李友, 先擅別區之烟月, 共作間中之樂事, 亦一勝妙也. 分八公之一面, 爲獨立之別界. 巖花林鳥, 棲遲於考盤之隅, 蘿月松風, 隱映於洗耳之泉. 聾以水聲, 啞以山容, ㉢常恐是非之到耳也. 俗人且莫笑隱者. 功業惟在於管領白雲而已矣.”

51) 『죽국헌유고』 <感聖恩歌> “愛民홍사 우리 聖上 昇遐帝鄉 何단 말가 / 無祿 何다 八道百姓 如喪考妣 님 은 何리 / 그남오 北山白骨도 응당 설워 何리로다”

52) 『죽국헌유고』 <庚申國恤哭班牧虎亭有感二首>.

53) 목호정은 필자가 과문한 탓에 정확한 위치를 고증하지 못하였다. 다만 분향이 속한 남일면(『장성읍지』 “芬香里元南一面, 竹芬·芬香·弓山·丙溪, 元內東面永洞·柿木…”)과 동면(東面) 사이에는 목호치(牧虎峙)가 존재하였다. 장수 이거 이전 김상직의 향촌 활동은 장성

이자 장성 남면 분향 사족으로서 활발한 대외 활동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1808년 장수 은거는 그가 평소 간직하고 있었던 안빈낙도를 향한 열망의 결과라기보다는 모종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이념적 대응의 측면에서 진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그의 은거를 현실 개선의 전망이 부재한 도피적 행위로 평가하는 것⁵⁴⁾은 조심스럽다. 김상직의 은거에 대해 당시 인척 관계의 인물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거듭 전하였던 정황⁵⁵⁾은 최소 선동파의 인적 네트워크에서는 이를 비판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의 “사람의 마음이 옛날 같지 않고 세상이 나와 어긋난다”, ㉡의 “세상의 시비(是非)가 들릴까 두려워” 등의 태도는 김상직의 은거에 대한 동인으로 주목할 만하다. 필자가 자칫 은거와 관련한 상투적 표현으로 치부될 수 있는 내용에 주목하는 이유는, <입산설>에서 확인되는 김상직의 자성적 태도가 장수 은거의 정황을 반영한 여타의 텍스트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자.

問爾華山翁	문노니 화산옹(華山翁)이여,
何事斷右肢	무슨 일로 오른팔이 잘렸는가?
一時矜高習	한때 교만했던 버릇이,
長爲千古嗤	오래도록 천년의 비웃음거리가 되었구나.
<過赤城路中>	

<過赤城路中>은 오늘날 순창군 적성면 일원의 화산옹 바위를 제재로 한 오언 절구이다. 적성은 장성과 장수의 길목에 위치한 곳이라는 점, 이 시에 차운

남면 분향 일원에서 이루어진 정황을 고려할 때, 목호정 또한 울산 김씨 선동파의 생활권과 관련한 누정으로 여겨진다. 목호치의 존재는 오형목(吳弘默, 1834~1906)이 편찬한 『여재촬요(輿載撮要)』 <장성(長城)>의 그림을 참고한 것이다. 吳弘默, 『輿載撮要』, <長城>

54) 안혜진, 「18세기 향촌사족 가사 연구」, 105~107쪽.

55) 『죽국헌유고』 <次四從弟商巖贈別韻> “臨發喜看贈慰律, 故園忍別吾行遲. 軒菊庭篁如有感, 誰從我後愛憐之”; <附柳時漢次韻> “菊醪添酌東門餞, 馬首遠山夕照遲. 杖履未陪分手去, 多情慰律因題之.” 류시환은 김상직의 막내 사위이다.

(次韻)한 사질(舍姪) 여석(金麗錫, ?~?)의 시⁵⁶⁾가 장수 은거를 슬퍼하는 내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過赤城路中>은 1808년 장수 팔공산으로 향하던 당시의 정황을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시의 모티프가 된 화산옹(華山翁) 바위는 순창 지역의 지명 전설에 해당한다.⁵⁷⁾ 주요 서사는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적성현의 안위를 예언하는 신이한 바위인 화산옹이 지역민의 경배를 받아 왔지만, 이를 부정하는 병사(兵使)와의 갈등 끝에 훼손당하며 그 영험함을 상실하게 되었고 때마침 일어난 천재지변으로 적성현 또한 폐현이 된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갈등의 동인은 1차적으로 화산옹 바위의 신이성을 부정하는 외부인의 태도에 기반하지만, 그 구조는 화산옹 바위를 향한 지역민의 믿음과 세속적 권위의 대립과 관련된다.

화산옹 전설의 비극적 서사는 <過赤城路中>의 3, 4구에 반영된 화자의 탄식에 대한 시각을 제공한다. 앞서 <계자사>와 <선생입산후사은가>를 통해 김상직은 장성 남면 분향 사회에서 확고한 사족적 위상을 지니고 있었음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화산옹의 오른팔을 보며 “한순간의 교만하던 버릇”을 탓하는 화자의 탄식은, <입산설>의 자성적 태도와 맞물려 김상직이 향촌 사회에서 시비 갈등에 노출된 자신의 처지를 투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밖에도 김상직은 <自敘>를 통해서 자신의 팔공산 은거를 관녕(管寧)의 요동(遼東) 은거에 비유하기도 하였다.⁵⁸⁾ 관녕은 가축을 모두 거느리고 은거하였다는 점에서 김상직의 정황과 유사하다. 또한 세속적 영달을 추구하는 친구와의 절연을 의미한 관녕할석(管寧割席) 고사⁵⁹⁾를 고려한다면, 당시의 시비

56) 『죽국헌유고』 <附舍姪麗錫次上韻> “葉尋新越飄難盡 水別前源逝不遲 家中竹菊還無主 阿姪臨分悵歎之”

57) 화산옹 바위와 관련된 지명 전설은 다음 책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양상화 편, 『순창의 구전 설화 (上)』, 순창 문화원, 2002, 119~120쪽.

58) 『죽국헌유고』 <自敘> “白雲深處是八公, 管寧自欲老遼東. 波生鏡面如斯逝, 霧繞蘿衣何彼濃. 此翁曾飲香山水, 今日還飽食川蔥” 향산은 남면 분향을 가리키는 것이며, 식천은 장수 계곡의 남쪽에 위치한 지명으로 김상직의 은거지를 의미한다.

59) 관녕의 행적과 고사에 대한 이해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였다. 황영희·권호중, 「文天祥正氣歌詩에 보이는 歷史人物考釋」, 『인문사회과학연구』 28,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갈등에 대한 문제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듯하다.

현재 <입산가>의 창작 맥락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사료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기는 어렵다. 다만 시비 갈등에 대한 김상직의 문제의식은 선동과 가문 구성원 간의 내적 질서에 근간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는 장수 이거를 전후한 시기 뿐만 아니라, 팔공산 은거 이후에도 가문 구성원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었다.⁶⁰⁾ 또한 은거 4년 만인 1812년에 환향하여 환대를 받았던 정황⁶¹⁾은 시비 문제가 최소 장성 분향 일원의 선동과 인적 네트워크 간의 갈등과는 변별적임을 보여준다.

기실 시비 갈등의 대상이나 원인에 대한 규명은 논외하더라도, 그 갈등의 과정이 누대에 걸쳐 마련된 가문의 세거지를 이거하게 된 계기가 될 정도라는 점이 중요하다. 다만 팔공산 은거와 관련한 『죽국헌유고』의 기록들은, 적어도 선동과를 위시한 장성 분향 사회에서 사족적 기반이 완전히 해체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김상직이 장수 팔공산으로 은거를 결행하는 행위는 경제적 몰락이나 사족 사회의 해체모니 문제 등으로 인한 수동적 결과라기보다는, 시비의 문제로 표상된 문제적 상황에서 은거를 통해 도덕적 자존감을 지켜내기 위한 이념적 대응의 측면으로 진단함이 적절할 것이다.

장수 은거와 이념적 대응의 면모는 앞서 살펴본 <계자사>의 창작 맥락과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계자사>의 창작 맥락에서 장성 분향은 가문 질서에 근간하여 사회 구성원을 교화하였던 공간이었다. 비록 향촌은 안빈낙도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운 귀농의 공간이지만, 교화의 측면에서는 사족으로서 도덕성의 제고와 관련한 사회적 실천을 수행했던 공간이기도 하였다. 사대부

2020, 308~310쪽.

60) 『죽국헌유고』 <還鄉吟> “塵心未盡還鄉里, 父老笑迎童稚喜. 蕙蘭古宅春猶在, 竹菊寒軒風不死. 園林謾作棄世人. 斂得行裝碧溪裏. 身邊自有一乾坤, 閤內諸人可去矣.” <환향음>은 김상직이 1812년 장성으로 회향하고 지은 작품이 아니다. 죽국헌을 향한 시선을 통해서 장수 이거 이후 해가 바뀐 봄철의 어느날에 고향을 방문하여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은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성 남면 분향을 진세(塵世)로 수사하는 양상은 세속을 향한 시선이 장수 은거 시기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61) 『죽국헌유고』 <故金公商稷墓表> “至壬申, 不勝懷土之感. 撤還香里. 知舊門生, 歡迎者無其數.”

의 치인(治人)이 중앙 정치로의 참여 뿐만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자각과 주변으로의 감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⁶²⁾을 고려할 때, 장성 분향은 그 직분을 실현한 공간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입산가>에서 향촌과 강호의 길항 구조와 ‘去留’ 공간성에 대한 해석의 시각을 제공한다. 김상직이 지닌 도덕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귀농의 위기에서 가문 질서에 근간하여 향촌 교화를 실현하였던 동인이었던바, 이는 사회의 시비 갈등에서 가문 단위의 은거를 결행하였던 기반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산가>에서 장수 팔공산 은거와 강호의 삶에 대한 심미성을 노래하면서도 장성 사회를 향한 불변의 그리움을 토로하는 태도는, 강호의 삶에 대한 몰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함이 아닌 ‘이념적 실천’의 측면에서 향촌과 강호가 일정한 자질을 공유하는 ‘去留’의 공간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산가>에 나타난 ‘去留’의 공간성은 김상직에게 향촌이 정태적(靜態的)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향촌은 그가 마주한 현실적 조건에 따라 수기의 문제의식을 유발하면서도 때론 치인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었다. 이에 향촌은 강호와 교훈 등의 주제구현방법과 관련하여 주요한 기제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상직에게 강호 또한 외부 세계와의 격절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형성할 수 있는 정태적 공간이 아니었다는 점도 <입산설>의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시비 갈등에 따른 이념적 실천을 위해 팔공산으로 은거한 상황에서 이씨 벗과의 교유가 강호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노래한다. 이러한 면모는 김상직에게 강호가 관념적 이상향으로서의 외연을 형성하면서도, 그 이면은 사족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구축된 실존적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62) 이흥우, 『증보 성리학의 교육이론』, 교육과학사, 2014, 266~287쪽; 박정원, 「修己와 治人 개념을 통한 철학교육적 인간상 탐구」, 『철학윤리교육연구』 24, 한국철학교육학회, 2008, 34쪽; 김광민, 「수기와 치인」, 도덕교육연구 28, 한국도덕교육학회, 2016, 12~13쪽; 이승준, 「상산(商山) 지덕봉(池德鵬)의 교육자적 면모와 시조 13수의 의미 지향」, 『한국시가연구』 64, 한국시가학회, 2026, 274~323쪽.

이씨 벗의 존재는 김상직의 장수 은거와 훗날의 환향(還鄉)에 대한 정황을 살필 수 있는 근거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죽국헌유고』에 수록된 이씨 벗에 대한 만장(挽章)을 통해 그가 광주 이씨 가문의 구성원으로서 89세의 고령에 해당한다는 점, 김상직이 은거하기 이전부터 팔공산에 자리하였다는 점, 장수 은거 이후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작고한 점⁶³⁾ 등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이씨 벗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김상직으로 하여금 장수 팔공산 은거 생활과 관련한 인적 네트워크의 위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환향에 대한 나름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강호로의 은둔을 거두고 환향을 선택하게 되는 일련의 궤적 또한 도덕성의 문제의식에 근간한 전범적 삶의 좌절로 평가할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김상직에게 강호 또한 외부세계와 단절된 관념적 이상향만이 아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구축된 실존적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은거 생활의 위기에서 발동하는 향촌의 강력한 구심력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김상직에게 향촌의 의미는 강호와 대립되는 세속이라는 고정된 객체만이 아니라, 현실적 조건에 따라 ‘이념적 위기’와 ‘도덕성 정립’의 구도 사이를 왕복하며 형성된 동태적(動態的) 산물이었던 것이다. 이에 동태적 공간인 향촌에 대한 의미와 맥락이 창작 주체인 김상직의 삶을 노정(路程) 짓고, 시가 문학의 주제의식을 견인하는 주요한 기제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63) 『죽국헌유고』 <謹晚光州李丈> “灑掃堂遺規, 習讀公行錄. 溫柔性率天, 敦睦姻所推. 恩深茂洞鴉, 德至山陰龜. 長爲隣鄉益, 竟作寓客悲. 結隣問幾月, 相携還未基. 稀齡今八九, 幽明却有欺. 棄我登仙去, 仰望不可期. 精靈且莫哀, 家有幹蠹遺. 處世幾積善, 八公卜吉基. 臨岐不忍別, 揮泣奉靈輿. 薤歌動哀詞, 掩抑未緘思. 離鄉別有恨, 一律强成之.” 시의 번역은 각주 44)를 참고하기 바란다.

4. 결론

본고는 김상직 시가의 현실 인식과 향촌의 공간성에 대해서 검토함으로써, 그의 문학 세계를 관류하는 통합적 독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김상직은 가문 질서의 정립을 통한 이념적 수호자로 조명받는가 하면, 유가적 명분에서 벗어난 현실 도피적 은거로 말미암아 강호의 지향을 실패하고 세속을 그리워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은 모순적 평가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화와 강호의 인식이 나타나는 <계자사>와 <입산가>를 검토한 결과, 두 작품의 창작 맥락에는 향촌사족으로서 도덕적 위기의식과 이념적 실천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김상직 시가의 통합적 독법은 향촌이 강호와 대립되는 세속적 공간으로 고정된 객체가 아니라, 동태적(動態的) 공간이라는 이해에 기반한다. <계자사>에서 향촌은 안빈낙도의 가치를 저해하는 ‘귀농(歸農)’의 공간이면서도, 가문 질서에 근간하여 장성 남면 분향 일원의 사족 구성원을 향한 학문적 연대와 이념적 결속을 고양하는 교화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또한 <입산가>에서 향촌은 강호를 세속과 단절된 관념적 공간이 아닌 장성 사회와의 연장선에 놓인 ‘거류(去留)’의 공간으로 형상화 하는 동인이 되는바, 이는 향촌 사회에서의 시비 갈등에 따른 도덕적 실천의 행위라는 점에서 장성 사족으로서 창작 주체가 지닌 위상과도 관련한다. 끝으로, 김상직 시가에 나타난 향촌의 공간성은 조선 후기 호남 사족 시가의 다기성에 대한 검토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선행 연구에서 다기성의 주요 자질로서 향촌 공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특정 가문의 출사 체험에 근간한 처세 문제가 주목받았던 정황을 고려해 보자. 인접 시기, 인접 지역에서 입신의 전망이 부재했던 한미한 사족인 김상직의 사례는 향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중앙 정치 참여의 욕망과 좌절에만 기반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즉 김상직 시가에 나타난 향촌의 공간성은 조선후기 호남 향촌사족의 시가가 향촌과 가문 내부의 현실적 맥락에 따라 다채로운 층위의

주제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문학적 전제가 되었음을 실증한다는 점에서, 그 시가사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자료

高光善, 『弦窩遺稿』
金商稷, 『竹菊軒遺稿』
吳弘默, 『興載撮要』

『古文眞寶』
『新增東國輿地勝覽』
『長城邑志』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1815년) 『潁陽千氏族譜』
潁陽千氏中央宗親會, 『潁陽千氏大同譜』, 2019.
울산김씨대종회, 『蔚山金氏族譜 卷四』, 2015.

2. 저서 및 논문

국윤주, 「애경당 남극엽의 시가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62쪽.
_____, 「연시조 <애경당십이월가>에 나타난 향촌사족층 문인의 내면의식」, 『어문논총』 16,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05, 83~108쪽.
권순희, 「田家時調의 美的 特質과 史的 展開 樣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27~140쪽.
권정은, 「조선후기 변이형 자연시조의 미적 경계: <花庵九曲>과 <愛景堂十二月歌>를 중심으로」, 『한국학』 2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207~231쪽.
(UCI : G704-000772.2006.29.4.010)
김광민, 「수기와 치인」, 도덕교육연구 28, 한국도덕교육학회, 2016, 12~13쪽.
(UCI :G704-001006.2016.28.1.006)
김봉곤, 「필암서원(筆巖書院)과 울산김씨(蔚山金氏)」, 『한국계보연구』 5, 한국계보연구회, 2014, 72~74쪽.
김석희, 『존재 위백규 문학 연구 - 18세기 향촌사족층의 삶과 문화-』, 이화문화사, 1995, 1~369쪽.
_____, 「18세기 향촌사회와 魏伯珪의 <농가구장>」, 김학성·권두환 편, 『신편

- 고전시가론』, 새문사, 2002, 326~337쪽.
- 김용찬, 「위백규 <농가>의 구조와 작품세계」, 『어문논집』 48, 민족어문학회, 2003, 127~160쪽.
(UCI :G704-000917.2003.48..005)
- 김시내, 「고려 말·조선시대 『古文眞寶』의 수용과 확산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102~123쪽.
- 박연호, 『교훈가사 연구』, 다운샘, 2003, 64~65쪽.
- 박영민, 「지지재 이상계의 초당곡·인일가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3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74~77쪽.
(UCI :G704-001589.2015..30.009)
- 박정원, 「修己와 治人 개념을 통한 철학교육적 인간상 탐구」, 『철학윤리교육연구』 24, 한국철학교육학회, 2008, 34쪽.
- 설인경, 「18세기 향촌 사족의 시조 연구」, 『문창어문논집』 47, 문창어문학회, 2010, 197~233쪽.
- 송재연, 「金商稷의 가사 <戒子詞>에 구현된 ‘戒子’ 형상과 의미」, 『영주어문』 62, 영주어문학회, 2026, 55~80쪽.
- 신성환, 「조선후기 農歌類 詩歌의 전개 양상과 의미 지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75~92쪽.
- 안혜진, 「18세기 향촌사족 가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23~124쪽.
- _____, 「위백규 <농가구장>의 권농가적 특성과 그 의의」, 『한국시가연구』 21, 한국시가학회, 2006, 217~248쪽.
(UCI :G704-000454.2006..21.007)
- 양상화 편, 『순창의 구전 설화 (上)』, 순창 문화원, 2002, 119~120쪽.
- 윤병용, 「남극엽 시조의 개작 및 한역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51, 한국고전문학회, 2017, 97~128쪽.
- _____, 「남석하 가사의 특징과 19세기 향촌사족의 시적 지향」, 『고전문학연구』 55, 한국고전문학회, 2019, 5~38쪽.
- 윤지아, 「조선 중·후기 지역 문학장의 변모 양상과 江湖歌辭의 의미 지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59~168쪽.
- 이상보, 「미발표 고전 : 김상직의 시가 4편」, 『현대문학』 25(7), 현대문학사,

- 1979, 324~328쪽.
- _____, 「김상직의 죽국헌가사」, 『續韓國古典詩歌研究』, 태학사, 1984, 75~82쪽.
- _____, 「애경 남극엽 시가 연구」, 『어문학논총 7』,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88, 5~34쪽.
- 이승준, 「상산(商山) 지덕봉(池德鵬)의 교육자적 면모와 시조 13수의 의미 지향」, 『한국시가연구』 64, 한국시가학회, 2026, 274~323쪽.
- 이종출, 「魏伯珪의 時調 <농가> 攷」, 『사대논문집』 1,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1970, 41~46쪽.
- 이흥우, 『증보 성리학의 교육이론』, 교육과학사, 2014, 266~287쪽.
- 임주탁, 「위백규 「농가」에 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15,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0, 245~267쪽.
- 정홍모, 「18세기 향촌사대부 시조의 한 국면 - 남극엽·황윤석·안창후의 시조」, 『조선후기 사대부 시조의 세계인식』, 월인, 2001, 211~236쪽.
- 조일형·이강복, 「정조(正祖)의 호남(湖南) 공령과(功令科) 시행에 관한 연구 - 고정봉(高廷鳳)의 「등과시말기(登科始末記)」 분석을 통하여」, 『호남학』 58,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5, 333~362쪽.
- (UCI :G704-001854.2015..58.006)
- 황영희·권호중, 「文天祥正氣歌詩에 보이는 歷史人物考釋」, 『인문사회과학연구』 28,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0, 308~310쪽.

| Abstract |

The Perception of Reality and the Spatiality of Hyangchon in the Classical Poetry of Jukgukheon Kim Sang-jik - Focusing on Gyejasa and Ipsanga -

Lee, Seung-jun
Pukyong National Univ. Prof.

This study examines the perception of reality and the spatiality of hyangchon (local village) represented in the poetry of Jukgukheon Kim Sang-jik. It aims to establish an integrated reading that penetrates his poetic works and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multiplicity (多岐性) of Honam literati poetry in the late Joseon period. In previous studies, Kim Sang-jik has been understood as an ideological defender who pursued the establishment of familial order in terms of edification, while simultaneously being evaluated as a figure who failed to immerse himself in gangho (nature) due to a lack of Confucian ideological justification for his seclusion. To overcome this contradictory perspective, this paper re-examines the creative context of Gyejasa and analyzes Ipsanga, which was produced within the magnetic field of gangho poetry.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creative contexts of both works share a critical awareness of moral crisis and ideological

practice as a local literati. For Kim Sang-jik, hyangchon did not merely mean a secular space opposing gangho, but rather a 'dynamic space' oscillating between ideological crisis and the establishment of morality depending on realistic conditions. In Gyejasa, hyangchon is a space of gwinong (returning to farming) that hinders anbinnakdo (living comfortably in poverty and taking pleasure in the Way), yet it was also a space of edification that enhanced the academic solidarity and ideological cohesion of the literati in the Bunhyang area beyond his own family. Furthermore, the seclusion to Mt. Palgong in Jangsu, as depicted in Ipsanga, was the result of an ideological practice against the conflicts of right and wrong within the hyangchon society. Accordingly, gangho appeared not as an ideological imaginary space isolated from the secular world, but as a space of 'georyu' (leaving and staying), where departure (去) and remaining (留) coexist as an extension of Jangseong Bunhyang, where the critical awareness of morality was realized.

Thus, the poetry of Kim Sang-jik, a member of a humble literati family with no prospects for officialdom, demonstrates that the spatiality of hyangchon—more strictly, the negative perception of hyangchon—is not limited merely to the issue of worldly conduct resulting from the desire and frustration of participating in central politics. The literary historical significance is confirmed in that the spatiality of hyangchon represented in Kim Sang-jik's poetry substantiates how the poetry of late Joseon Honam literati served as a literary premise for realizing diverse layers of thematic consciousness according to the realistic contexts within the local

village and family.

Keywords : Kim Sang-jik, Gyejasa, Ipsanga, Spatiality of Hyangchon, Late Joseon Honam Literati
Poetry, Multiplicity